



2015년에도 전국에서 다양한 연꽃 축제가 열린다. 사진은 세미원 연꽃문화제를 찾은 어린이들이 현장학습을 하는 장면.

# 연꽃 滿開하니 온 세상이 연화장세계

(만개)

## 2015 전국서 연꽃축제

“나는 연을 사랑하나니 연꽃은 진흙 속에서 낚지만 더러움에 물들이지 않고 맑은 물결에 씻기어도 요염하지 않으며 속이 비고 밝이 곧으며 덩굴지지 않고 가지도 없다. 향기는 멀리 갈수록 맑으며 우뚝 서 있는 모습은 멀리서 보아야 참 맛을 느끼게 하니 연은 꽃 가운데 군자이다.”

송나라 유학자 주돈이는 연꽃을 보면서 군자를 떠올렸지만 불교에서 연꽃은 연못 위에 그대로 만개해 연화장세계를 펼친다. 진흙 속에 오물이 피어 불법의 진리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여름이면 전국 곳곳에서 연꽃 축제가 열린다. 만개한 연꽃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싶다면 어느새 좀더 부처님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만 같다. 연꽃도 감상하며 축제를 즐길 수 있는 현장 속으로 여행을 떠나보자.

물과 꽃의 정원 세미원에서는 향기롭고 그윽한 연꽃의 향연이 펼쳐진다. 7월 4일~8월 16일 열리는 연꽃문화제는 ‘물을 맑게, 마음을 맑게’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연꽃관람전시, △‘음식으로 피어난 연꽃전’ △‘연꽃음식 체험마당’ △연꽃명상 ‘세미원 산책’ △작가체험마당 △연꽃문화체험교실 △연꽃음악회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명상 프로그램인 ‘세미원 산책’은 아침시간에 명상가와 함께 탁 트인 강변과 연꽃밭을 거닐며 스스로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과정이다. 연꽃차를 음미하며 건강적인 인삼빵과 연자를 같이 만든 연자유를 맛보으로써 몸과 마음을 힐링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미리 신청을 받아 진행하며 무료다. 또한 연꽃문화제 기간 중에는 매주 토요일마다 연꽃음악회가 펼쳐지는데

한국가곡예술연주회에서 들려주는 가곡의 향연과 옛지오카리나양상블의 오페라 나 공연이 펼쳐진다.

부여 서동 연꽃 축제도 7월 10일~19일 부여서동공원 공남지 일대에서 열린다. 7월 10일 공남지 수상무대에서의 주제공연을 시작으로 초청가수 축하공연이 이어진다. 명품경관 연꽃축제 현장 스토리 현장 토크쇼 ‘임백천 라디오 7080’과 공남지

### 세미원-연꽃 명상, 음식 체험

### 서동 연꽃 축제-풍등 날리기

### 무안연꽃축제-연꽃 백일장 등

수상공연장에서 ‘사랑 설립 행복 낭만’을 주제로 축하음악회가 열린다. 이밖에도 익산시립무용단 공연 ‘서동애화’, 전통 예술단 ‘훈’의 전통연희 관놀이 등이 이어지며 체험행사로는 사랑의 소망 풍등 날리기 등도 진행된다.

남양주 봉선사에서 7월 25일 ‘제13회 봉선사 연꽃축제’를 특별무대에서 개최한다. 봉선사는 ‘사부대중 1만 2천명이 참석할 것으로 보이는 이번 축제에서는 불교음악

### 전국 연꽃축제

행사명	날 짜	내 용	번호
세미원 연꽃문화제	7월 4일~ 8월 16일	연꽃명상·음식 체험	(031)775-1830
부여 서동 연꽃 축제	7월 10일~19일	축하음악회, 풍등날리기 등	(041)830-2921
봉선사 연꽃축제	7월 25일	음악회	(031)527-1956
무안연꽃축제	8월 13일~16 4일간	‘연꽃 소망풍등’ 날리기 등	(061)450-5473
하소백련 축제	7월 17일~19일	음악회 행차 행사	(063)542-8943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 문화 속에서 만난 佛敎

# 외로운 꿈과 부모 잃은 마사의 훈훈한 인연

### 러시아 초원의 동심(童心)으로의 초대

## EBS TV만화 ‘마샤와 곰’

네 살의 아들을 둔 필자는 원하지 않아도 어린이용 애니메이션을 봐야 한다.

어린이용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동화적 상상력과 소설적 상상력은 매우 다르다는 것을 느낀다. 동화적 상상력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의인화이다. 그리고 이 의인화에는 동물은 물론이고 무정물(無情物)도 대상이 된다. 그리고 보면, 사람들은 언젠가부터 동심을 잃는다. 그 시점은 아마도 논리적 혹은 합리적 사고가 싹트면서부터일 것이다. 그런데 사고를 전환하면 자로 잰 것처럼 완벽해 보이는 이성적 사고란 것도 그야말로 인간의 입장에 지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가령, 린네의 명명법을 들 수 있다. 과연, ‘종-속-과-목-강-문-계’로 나뉘는 이 명명법을 인간이 아닌 다른 자연 구성원들은 알고 있을까? 바퀴 말해서 이성적 혹은 합리적 사고는 자연의 도구화에 지나지 않는다.



최근 EBS에서 방영 중인 ‘마샤와 곰’은 재미도 있거니와 따뜻한 정조를 지니고 있어서 온 가족이 함께 봐도 좋은 애니메이션이다.

### 서로가 외로움을 달래주는 존재

### 어머니의 자비가 느껴지는 스토리

### 온 가족이 함께 보는 애니메이션



려간다. 버려진 아이라는 점에서 원작 동화는 <헨젤과 그레텔>을 떠올리게 한다.

그로테스크한 원작동화와 달리 애니메이션은 시종일관 따뜻한 정조를 유지한다. 줄거리도 다르다. 원작과 달리 애니메이션의 곰은 착하다. 서커스단 출신의 곰에게 어느 날 천진난만한 말쑥꾸러기 마사가 찾아온다. 애니메이션에서도 마사의 부모는 가족이 없는 외로운 아이이다. 마사의 곰의 집을 속대밭으로 만들기 일쑤이다. 그런데도 곰은 마사를 흔쾌히 안고 돌본다. 하루는 늑대들이 마사를 유괴하는 일이 발생한다. 그리고 늑대들은 먹을 것을 가져오지 않으면 마사를 돌려보내지 않겠다고 협박한다. 물론, 곰은 딸을 기쁘게 돌려준다. 달려드는 개들을 보고 곰은 어찌지 못하고 도망친다. 마사의 바구니에서 나와 공장 집으로 달

“할아버지, 할머니께 튀김을 전해주고 싶어.”

곰이 대답한다.

“안 돼. 너 대신 내가 튀김을 갖다 주고 올게.”

마샤는 튀김이 든 바구니에 몰래 숨는다. 그 사실도 모르고 곰은 마사의 집으로 향한다. 마을에 다다르자 튀김 냄새를 맡은 개들이 달려든다. 달려드는 개들을 보고 곰은 어찌지 못하고 도망을 친다. 마사의 바구니에서 나와 공장 집으로 달

대들이 외려 먹을 것을 들고 곰에게 찾아온다. 다시 마사를 받아달라는 것이다.

또 하루는 곰이 마사를 위해 드레스를 만들어준다. 마사의 드레스를 급세 더럽힌다. 곰은 그 드레스를 세탁한 뒤 다른 드레스를 만들어준다. 그 일이 끊임없이 반복된다. 애니메이션이 끝날 무렵 어찌면 마사의 더 많은 웃을 갖고 싶어서 웃을 더럽혔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처럼 마사와 곰은 서로 외로움을 달래주는 관계인 것이다. (곰은 옛 영화의 회화에 있어서 사는 러시아 남성을 상징한다고 한다. 실제로 러시아는 한 때 양극체제에서 한 축을 담당했던 강대국이였다.)

마샤와 곰은 시련 가슴을 안고 사는 어린 소녀와 곰이 친구가 되어서 따뜻한 정을 나누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모든 종교의 궁극적인 가르침은 황금률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황금률이란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 시키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남에게 하라’는 것이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다른 종교와 달리 불교는 그 황금률의 대상이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자구성원까지 포함한다는 것이다. 사랑과 자비(慈悲)의 차이도 바로 이 지점에 있는지도 모르겠다. 모든 숨을 탄 존재들을 한없이 가여워하는 마음, 그것이 자비인지도. 그리고 보면, 자비란 사랑과 슬픔이 합쳐진 단어가 아닌 가?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돌보는 마음과 같은 것이다.

유용우 작가

# 불경 라디오 成佛



## 불경과 라디오를 하나로!!!

언제 어디서나 불자의 기도, 각종 염불, 찬불가를 간단한 조작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등산, 산책, 모임, 법회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요를 담은 SD 메모리도 재생이 가능합니다.

**사용 설명** 원하는 번호를 누르면 해당 불경이 바로 나오고, FM 버튼을 누르면 라디오로 전환됩니다. (FM버튼을 누르고 계시면 자동 주파수 검색됩니다.)

**제품구성** 성불라디오 (가로12cm × 세로5.7cm × 두께2.5cm) + 4GB불경SD카드 + 1200AM배터리 + USB충전케이블 + 충전이달터 + 불경목록 + 사용설명서

● 가격 : 6만원 (배송비 포함)

※ 스님들께서 불자들에게 드리는 선물로도 더욱 좋습니다.



구입처 : 현대불교현불샵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 ■ 불경목록 (음원 저작권 협의)

#### □ 정천의 삶을 위한 기도

1. 불자의 기도
2. 아침의 기도
3. 가나 평안을 위한 기도
4. 밤의 평안을 위한 기도
5. 명상음악
6. 행복한 기정을 위한 기도
7.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
8. 생일의 기도
9. 장영 염불
10. 자비의 기도
11. 마음이 머무는 곳에
12. 반송으로 왔다가
13. 사랑의 열매
14. 여름 별레는 겨울이 있을을
15. 가난은 죄가 아니오
16. 마음이 머무는 곳에
17. 시간이란 누구에게나
18. 향수를 버려라
19. 날의 과실을 꾸짖는 마음으로
20. 일시에 분을 점으면

#### □ 향공스님의 염불시리즈

21. 광명진언 1
22. 광명진언 2
23. 개경계
24. 지경공덕분
25. 예불문
26. 아산 혜원선사 발원문
27. 천수경
28. 반야심경
29. 화엄경 약한계
30. 법성계
31. 참선곡
32. 우리말 반야심경
33. 관음정진

#### □ 찬불가

34. 삼귀의
35. 찬양합니다
36. 예불가
37. 참법가
38. 불교의 노래
39. 새 발우 환영가
40. 부처님께 기원합니다
41. 부처님께 바칩니다
42. 사찰서경
43. 산회가
44. 관세음의 노래
45. 부현행원
46. 김로법을 전하차
47. 초파일의 노래
48. 마하반야의 노래
49. 상도재의 노래
50. 우리도 부처님 같이
51. 불교는 평안
52. 관세음보살 1악장
53. 관세음보살 2악장
54. 개경계
55. 이상정명분

# 현불샵 특가판매 편백나무 원목 경상(經床)

법회나, 경전강의, 개인기도 등 법당 및 가정에서 불자님들의 수행과 함께 합니다.

**경상(經床)**  
불교경전을 얹어놓고 읽는데 사용하는 책상. 법당과 가정에서 기도와 공부하는데 꼭 필요한 책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혀 자신은 물론 가족 모두가 불자가 되는 처음 시작하는 책상.



- 재질 : 편백나무
- 크기 : W60cm × D40cm × H28cm
- 특징 : 고급 접이식 경첩을 고정하여 사용이 편리합니다.
- 가격 : 개당 6만원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4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